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
	<b>배포일시</b>	2017. 12. 28.(목) 총 3매(본문2)	
<b>담당 부서</b>	혁신행정담당관	<b>담당 자</b>	• 과장 이운상, 사무관 김태웅, 주무관 김진성 • ☎ (044) 201-3216, 3218
<b>보 도 일 시</b>		2017년 12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8.(목) 18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, 기간제 3,063명 정규직 전환 결정 기간제 근로자 전환 심의 완료...파견·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도 계속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,6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가 모두 완료됐다.
- 한국공항공사의 전환 심의(12. 28.)를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 심의 결과 3,063명(66.4%)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.
  - 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7. 20. 발표)’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와 고령자,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종사자와 같이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,547명은 전환 제외자로 결정되었다.
-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근로자들은 각 기관의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내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.
-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‘기관별 노·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’는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설치한 「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」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그간 「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」, 전문가 자문단, 간부·실무자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,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각 기관의 차질 없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왔다.
- 비정규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·용역 근로자의 경우는 각 기관별로 구성한 「노·사·전문가 협의체」에서 정규직 대상, 전환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.
  - \*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총 4.2만명이며, 상시·지속 비정규직 4.1만명 중 가이드라인에 따른 잠정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.9만명(71.7%, 기간제 3천명 +파견·용역2.6만명)
- 각 기관별로 가이드라인 상 기준인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되, 가능한 경우 민간 업체와 전환 시기의 단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- 파견·용역의 경우 이해관계, 직무 분야 등이 기간제 근로자보다 다양하여 전환 방식, 채용절차 등에 대한 합의와 전환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,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.
- 특히,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도출했고, 내년 1월 1일부로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에 총 1,5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년부터는 파견·용역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연내에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심의를 완료하여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.”라며, “파견·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원만하게 전환되어 사회 양극화 완화,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혁신행 정담당관 김태웅 사무관(☎ 044-201-32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 고**

**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전환 현황**

구 분	기관명	기간제		
		총원	전 환 의결	제 외 의결
계		4,610	3,063	1,547
공 기 업	인천국제공항공사	42	11	31
	한국공항공사	29	21	8
	LH	1,379	1,261	118
	한국수자원공사	560	233	327
	한국도로공사	194	3	191
	한국철도공사	164	47	117
	한국감정원	52	49	3
	주택도시보증공사	15	14	1
	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	8	3	5
준 정 부 기 관	철도시설공단	26	0	26
	교통안전공단	23	15	8
	한국시설안전공단	42	29	13
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7	0	7
	한국국토정보공사	299	284	15
기 타 공 공 기 관	코레일유통	21	14	7
	코레일로지스	70	52	18
	코레일관광개발	114	85	29
	코레일네트웍스	670	359	311
	코레일테크	617	524	93
	주택관리공단	0	0	0
	한국건설관리공사	179	0	179
	워터웨이플러스	71	33	38
	항공안전기술원	28	26	2